

訓民正音 글자 만든 原理
(陰陽五行 原理)로 살펴본,
韓方病理 用語 痛·病·疼의
우리말 解釋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古典研究所 校閱委員 韓醫學博士 金字鎬

目 次

I. 緒論	26
II. 本論	26
1. 문헌적으로 살펴본 痛字의 우리말 해석	26
2. 訓民正音 28字의 창제 원리	27
가. 陰陽五行의 기본 개념	27
나. 자음 17字의 창제 원리(음양오행원리에 의한 창제)	29
다. 모음 11字의 창제 원리(三才八卦 원리에 의한 창제)	31
3. 창제 원리에 의한 痛·病·疼字의 풀이 및 해석	32
가. 痛字의 풀이 및 해석	33
나. 疼字의 풀이 및 痛과의 차이	33
다. 病字의 풀이 및 痛과의 차이	33
III. 結論	34
IV. 參考文獻	34

I. 緒論

올해로 세종대왕께서 訓民正音を 창제하신지 547돌이 된다. 그동안 많은 한글학자 그리고,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말과 글이 다듬어져 왔다.

이제 대망의 이십일세기를 바라보면서, 한국은 세계 역사의 중심국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반만년 민족사의 면면한 흐름 속에서 한 때 어려움도 겪었으나, 우리의 말과 글을 비롯해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 있음으로써 문화민족임을 세계속에 자랑하고 있다. 인류문명사의 커다란 전환시기에 한국은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이념의 다름으로 인해 두개의 국가 형태를 띄고 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이 시기를 南北國時代 또는, 二國時代라 부를런지도 모른다.

1945년 해방 이후 나뉘어진 국토와 더불어 사상과 이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물들이 상호교류되고 각 민족 국가들이 서로 이해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계 문명사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단일 민족간에 있었던 사소한 차이는 쉽게 극복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속의 한국, 21세기의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경제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상전래의 고유문화를 주체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세계 문화사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민족임을 선양함이 한층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도 있듯이 근래에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우리것 찾기 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흐름은 의학계에서도 일어나

고 있다. 서양의학계에서도 해부학 용어를 우리말로 바꾼바 있으며 한의학계에서도 한방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한의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痛·病·疼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 철학적 배경을 훈민정음에 기대어 풀이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문헌적으로 살펴본 '痛'字의 우리말 해석

痛은 '아프다'는 뜻이니, 예컨대 頭痛은 '머리가 아프다.'라는 의미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동의학 용어해설집, 1990》에는 '머리 아픈 병증' 또는 '머리 아픈 증상'이라 풀고,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단지 한글음만을 달아 '두통'이라 하였고, 여강출판사에서 낸 《제중신편, 1992》에는 '머리가 아플 때'라 풀고, 역시 음만을 달아 '두통'이라 하였으며, 여강출판사에서 낸 《동의내과학, 1992》에는 '머리 아픈 것'이라 하고, 역시 음만을 붙여 '두통'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頭痛을 '두통'이라 한 것은 단순히 음역한 것에 불과해서 우리말로 완전히 소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픈 것'이라고 풀이한 것 역시 사물의 현상·성질을 나타내는 '것', 시간을 나타내는 '때'라는 매인이름씨(불완전명사)가 군더더기로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자리토(주격조사)인 '가'가 붙어 있어 풀이꼴(서술형)로는 적합하지만 이름꼴(명사형)으로

는 마땅치 않다. 또한 ‘머리가 아픈 증세’, ‘머리 아픈 증상’, ‘머리 아픈 병증’이라 한 표현 역시 증세(症勢)·증상(症狀)·병증(病症)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 용어를 덧붙인 것에 불과할 뿐, 漢字로 된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바꾼다는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추가한 데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현재 한국에 소개된 북조선의 동의학 사전류 내지 동의학 서적에서는 단순히 음역만 하고 있거나 또는, 증세·증상·병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 용어를 덧붙인 데 불과할 뿐, 본질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 1991》에 頭痛은 한의학 용어로 ‘머리앓이’이다 라고 한 것은 본질에 일보전진한 것으로, 민간에서 배가 아픈 병을 앓을 때에 ‘배앓이’한다라고 하고 가슴이 아픈 병을 앓을 때에 ‘가슴앓이’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말 큰사전, 1991》에 ‘腹痛’을 ‘배앓이’라 하였고 ‘胸腹痛’ 또는 ‘心腹痛’을 ‘가슴앓이’라 하여 痛을 ‘앓이’로 옮겨 놓았다. 또 《우리말 대사전, 1991》에 보면 ‘가슴앓이’, ‘가슴앓이’, ‘가슴앓이’의 세조항이 있는데 풀이하기를 ‘가슴앓이’는 ‘가슴앓이’의 전라남도식 표현이며 ‘가슴앓이’ 역시 ‘가슴앓이’를 가르키는 말이라 하여 痛을 ‘앓이’란 말로 옮겨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 대사전, 1991》에 ‘가슴앓이’는 ‘가슴속이 쓰리고 켜기며 아픈 병’이라 하였으며, 또 ‘앓이’조항에서는 ‘병(病)’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라 하여 病을 ‘앓이’라 표현하기도 함으로써 痛과 病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앓이’로 혼용해 쓰고 있다. 이제 痛과 病, 아피와 앓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말 창제의 근본원리가 되는 훈

민정음 28字의 창제원리를 살펴보자.

2. 훈민정음 28字의 창제 원리

가. 陰陽五行의 기본 개념

훈민정음은 동양철학이면서 동양과학이기도 한 陰陽五行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졌으니 먼저 陰陽五行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기로 하자.

한의학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에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 하였다.

이 세상에 어느 사물이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으로 하늘과 땅보다 크고 넓은 것은 없는 것이다.¹⁾

하늘은 陽의 가볍고 맑은 기운이 상승해서 이루어졌으며(積陽爲天) 그精이 맺혀 해가 되고, 땅은 陰의 무겁고 탁한 기운이 쌓여서 만들어졌으며(積陰爲地) 그精이 맺혀 달이 되어²⁾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기를 무한히 되풀이 하니 陰陽은 하늘과 땅, 해와 달의 길인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만사 만물 역시 陰陽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으니,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응달(陰地)이 있으면 양달(陽地)이 있고, 動物[陽]이 있으면 植物[陰]이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으며, 머리(陽)가 있으면 몸통(陰)이 있고, 등

1) 周易·繫辭上 11章: 法象莫大乎天地.

2) 徐敬德, 花潭集·原理氣: 一氣之分爲陰陽 陽極其鼓而爲天 陰極其聚而爲地, 陽鼓之極 結其精者 爲日 陰聚之極 結其精者爲月

(陽)이 있으면 배(陰)가 있어 이 세상의 어느 사물이라도 陰陽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보다 큰 것은 없으니 3) 하늘에 봄[溫] 여름[熱] 장하[濕] 가을[冷] 겨울[寒]의 계절변화가 일어나면, 땅에서는 발생[發陳] 성장[蕃秀] 변화[調和] 수렴[容平] 내장[閉藏]의 변화가 이루어져, 봄여름에 만물이 발생하여 성장하다가 가을겨울에 잎이지고 열매 맺은 후 앙상한 가지만 모습을 드러내니 陰陽은 變化의 父母인 것이며 生殺의 本始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 변화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만물은 영락없이 새싹을 틔우고 또 자라나니 이 어찌 神靈스럽지 아니하며 神明의 주재함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천지간의 어느 사물이라도 陰陽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물이든 그것을 하나의 太極(전체성을 갖춘 하나의 독립체, 개체단위)으로 간주하였을 때 그 안에는 자연히 陰陽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의 얼굴을 예로 들어 보면(얼굴을 하나의 太極이라면) 얼굴에는 다섯 감각기관이 있으니 곧 눈·코·귀·입·혀이다. 이들 다섯 감각기관을 위치면과 운동면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치면에서 감각기관이 위치한 앞면을 陽이라 하면 뒷면은 陰이 된다.

또 얼굴의 살을 기준하였을 때 속이 움글고[實] 볼썽 튀어나온 것은 陽이고 속이 비고 움푹 들어간 것은 陰이니, 귀[耳]는 제일 뒤에 위치 하면서 또한 안으로 깊이 들어가 陰 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水에 해당하고, 눈[目]은 귀 다음에 위치하였으되 튀어 나왔으니 陰 중의 陽

이 되어 오행상 木에 해당하며, 입술[口脣]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리 튀어 나오지 않고 평평한 편이며 口腔은 또한 식도로 연결되어 깊이 들어가니 陰 중의 至陰이 되어 오행상 土에 해당하고, 코[鼻]는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튀어나온 象이지만 콧구멍을 통해 숨길[氣道]로 깊이 연결되니 陽 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金에 해당되며, 혀[舌]는 비록 입안에 위치해 있으되 마음만 먹으면, 즉 혀를 내밀면 코[鼻]보다 앞에 위치할 수 있고 움골차며 볼썽 튀어 나오니 陽 중의 陽이 되어 오행상 火에 해당한다. 한편 위치와 운동을 아울러 살펴보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능동적으로 전하는 활동을 陽이라 할 때 상대의 말을 듣는 행위는 수동적인 것으로 陰에 해당된다. 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각기관은 陽,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기관은 陰이라 볼 때, 귀[耳]는 제일 뒤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또한 한 상대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기만 하니 陰 중의 陰이고[屬水], 눈[目]은 귀 다음에 위치하였으나 혀 다음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으니 陰 중의 陽이 되고[屬木], 입술[口脣]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보다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니 陰 중의 至陰이다[屬土]. (언어나 냄새는 無形으로 陽이라 한다면 음식물은 有形으로 至陰인 것이다). 코[鼻]는 제일 앞에 우뚝 위치하였으되 거의 움직이지 않는 편이며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못하고 상대의 냄새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陽 중의 陰에 속하며[屬金], 혀[舌]는 제일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고 제일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가장 잘 전하니 陽 중의 陽이 된다

3) 周易·繫辭上 11장: 變通莫大於四時.

[屬火].

이처럼 천하 사물은 모두 陰과 陽으로 나뉘어 관찰할 수 있으며 다시 보다더 陰性인 것 보다 더 陽性인 것으로 미루어 넓혀 갈 수 있다.⁴⁾

그러나 陰陽은 운동 변화에 있어 待對的 개념이기 때문에 陽에서 陰으로 또는 陰에서 陽으로 轉化하거나, 陽과 陰 또는 陰과 陽이 맞닿아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陰陽 현상의 대립 또는 전화를 매개할 수 있는 中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三才에 있어서는 사람이요, 五行에 있어서는 土의 역할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는 前後·左右·上下의 六合空間인데 이러한 六合空間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中央이 설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사람 몸을 예로 들어보면 上下는 머리와 발에 해당되고 前後는 등과 배, 左右는 왼팔과 오른팔에 해당되니 上下와 前後는 바꿀 수 없으며 左右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인체에 있어 上下와 前後 그리고 中은 불변인 것이다. 또 땅을 예로 들어보면 上下는 하늘과 땅이 되고 左右는 東과 西가 되며 前後는 南과 北이 되는데 上下와 左右는 불변이로되 前後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땅에 있어 上下와 左右 그리고 中은 불변인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의 운동변화 현상을 관찰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입체적 관찰(종합적 관찰)을 위해서는 五行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주 운동의 본원력(本源力)인 五行의 운동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陰陽(三陰三陽 현상⁵⁾)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素問·陰陽離合論: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數 然其要一也.

나. 자음 17字의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한 창제 원리

훈민정음의 당소리[子音] 17字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기본 다섯자를 만든 다음(우주의 근본되는 힘 오행을 본뜸) 여기에 劃을 더해 열두자를 더 만들었다.(五行의 순환, 1년 12달의 순환원리 상징.) 다시 말해 기본 다섯음을 그들이 발음되는 造音器官을 본 따 만들었으니 이것은 마치 한의학에서 생명활동의 증추가 되는 다섯센타[五臟]의 작용이 인체의 上部에 있어서는 눈[肝] 코[肺] 귀[腎] 입[脾] 혀[心]라고 하는 다섯 감각 창구를 통해 외부로 발현되고, 또한 몸 전체에 있어서는 살갓[肺] 핏줄[心] 살[脾] 힘살[肝] 뼈[腎]의 다섯 연결망에 의해 외부로 발현되며, 오장에 각기 함장된 감정이 怒[肝] 喜[心] 思[脾] 憂[肺] 恐[腎]이라는 정서로 드러난다는 藏象學說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① 목구멍소릿자(喉音: ㅇ ㅎ ㅎ)

목구멍소릿자는 목구멍의 끝을 본 뜬 것으로 목구멍은 위치면에서 제일 뒷쪽 아래에 깊이 자리하여 있고[北方], 운동면에서 말을 하거나,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을 때에 제일 수동적이니(씹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넘기기만 함) 陰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水에 해당된다.

② 어금니소릿자(牙音: ㄱ ㅋ ㆁ)

어금니소릿자는 혀뿌리로 목구멍을 닫는 끝을 만 것으로 위치면에서 어금니는

5) 陰陽과 五行의 關係, 박찬국, 대한원전의학회지 Vol. 4. P. 18 : 五行은 宇宙 만물의 本體의 生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요, 陰陽은 그 變化를 설명하고 있다.

목구멍 다음으로 안쪽 깊숙히 자리하고 [東方], 운동면에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혀 다음으로 많이 움직이며, 소리가 목구멍 다음으로 깊은 곳에서 나오 되 응골참[實]이 있으니 陰 중의 陽이 되어 오행상 木에 해당된다.

③ 혀소릿자(舌音: ㄴ ㄷ ㅌ)

혀소릿자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꼴을 띤 것으로, 위치면에서 비록 이[齒]의 뒤에 자리하고 있으나, 혀를 내밀면 가장 앞쪽 위로 나올 수 있으며[南方] 운동면에서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니, 陽 중의 陽이 되어 오행상 火에 해당된다.

④ 입술소릿자(脣音: ㅍ ㅂ ㅍ)

입술소릿자는 입모양을 본 뜬 것으로 위치면에서 안으로 구강 점막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밖으로 입술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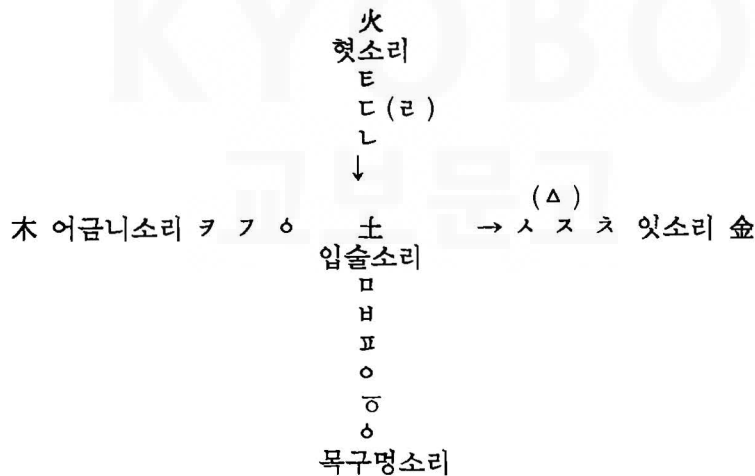
당된다.

⑤ 잇소리자(齒音: ㅅ ㅆ ㅈ)

잇소리자는 이모양을 본 뜬 것으로, 위치면에서 혀의 앞에 있으면서 높이 자리할 수 있고[西方], 운동면에서 어금니보다 소극적이며 주로 끊는 역할을 하니, 陽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金에 해당한다. 혀의 지나친 활동을 입술과 더불어 굳게 막으니, 6) 마치 오행에 있어 金의 억제력이 火의 지나친 번성을 토를 매개로 하여 收斂시키는 象과 같다.

⑥ 반혓소리자(半舌音: ㄹ)는 혀가 윗 잇몸에 살짝 닿는 모양을 띤 것으로, 오행으로는 火에 해당하고, 반잇소리자(半齒音: ㄷ)는 金에 해당한다.

이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7)



앞·바깥쪽에 자리하였으나 입술을 빨아들이면 가운데에 자리할 수 있으며, 운동면에서 목구멍 다음으로 수동적이어서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감싸줌으로써 새나가는 것을 막으니 陰 중의 至陰이 되어 오행상 土에 해

6) 古人曰口是招禍之門이니 守口如瓶하라 하고, 예수가라사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니라.

7) 新講訓民正音, 徐炳國, 學文社, 1983, P 105.

다. 모음 11字的 三才八卦에 의한 창제 원리

자음 17字가 陰陽五行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모음 11字는 三才八卦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11字 가운데에서 기본이 되는 3字는 天地人 三才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는 혀가 오르러 들어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子에서 열림이고(天關於子) 모양을 둥글게 함은 하늘을 본뜬이며, ‘一’는 혀가 조금 오르러 들어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丑에서 열림이고(地關於丑)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이며, ‘|’는 혀가 오르러 들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寅에서 생김이고(人生於寅) 모양이 수직으로 섬은 사람을 본뜬이다.

天關於子 地關於丑 人生於寅을 1년 12달을 예로 들어 풀어보면 음력 11月(子月) 冬至(양력으로 12월 23일)경부터는 해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니, 비록 날씨는 춥지만 하늘의 운행은 이미 陰道에서 陽道로 접어 들었으니 곧 하늘이 子에서 열림이다. 卦로는 復卦()에 해당한다. 음력 12月(丑月) 大寒(양력으로 1월 21일경)부터는 해그림자가 더욱 길어질 뿐만 아니라 날씨가 가장 추웠다가 풀리기 시작하여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음을 알 수 있으니, 땅이 丑에서 열림이다. 卦로는 臨卦()에 해당한다. 음력 正月(寅月) 立春(양력으로는 2월 5일경)부터는 해그림자가 더욱 길어지고 땅에서는 눈과 얼음이 녹고 기후도 온화해져 사람도 이때부터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게 되니, 사람이 寅에서 생활함이다. 卦로는 泰卦()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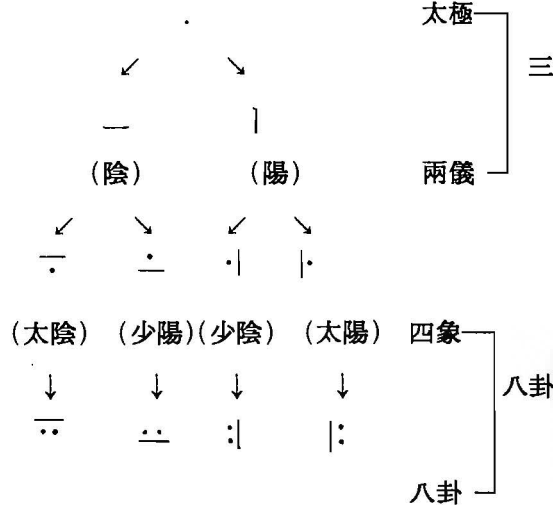
이러한 三才사상은 동양에 일찍부터 있었던 사고로서, 모든 만물은 하늘에 根하고 땅에 本하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사

물도 하늘과 땅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만물 가운데 사람은 가장 바르고 떳떳하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부여받은 우두머리격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온전히 보존 발휘하게 되면 만물을 대표해 천지와 더불어 三才의 하나로써 天地의 化育에 동참하게 되니,⁸⁾ 이는 자식이 처음 부모의 품에 의지하여 자랄 수 밖에 없었으나 장성해서는 부모와 더불어 자신의 의사표현도 하고 나아가 부모를 대신해 집안밖의 온갖 일을 처리하며 부모를 봉양하기까지 하는 것과 같다.

나머지 8字는 《周易·繫辭上》 11章에 “是故로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生八卦하니 八卦定吉凶하고 吉凶이 生大業하나니라”라고 하였듯이 세번 변해 卦를 이루는 원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가 太極이라면 ‘一’와 ‘|’는 兩儀이니 ‘·’가 수직으로 움직이면 ‘|’가 되고, 수평으로 움직이면 ‘一’가 된다. 다시 ‘一’에 ‘·’가 위아래로 더해지면 ‘二’와 ‘ㄱ’가 되고 ‘|’에 ‘·’가 오른쪽 왼쪽으로 더해지면 ‘|·’와 ‘·|’가 되어 四象이 된다. ‘二’는 소리가 ‘·’와 같이 하늘에서 나와 陽에 속하지만 입을 오므리고 발음하므로 闔[陰]이 되고(陽 중의 陰) ‘ㄱ’는 소리가 ‘一’와 같이 땅에서 나와 陰에 속하고 또 입을 오므리고 발음하므로 역시 闔[陰]이 되며(陰 중의 陰) ‘|·’는 소리가 ‘·’와 같이 하늘에서 나와 陽에 속하고 闔[陽]이 되고(陽 중의 陽) ‘·|’는 소리가 ‘一’와 같이 땅에서 나와 陰에 속하지만 입을 벌리고 발음하므로 闔[陽]이 된다(陰 중의 陽). 또 다시 ‘二’ ‘ㄱ’ ‘|·’ ‘·|’에 ‘·’가 더해지

8) 《中庸》曰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시 ‘ㄴ’ ‘ㄷ’ ‘ㄹ’ ‘ㅇ’에 ‘ㅇ’가 더해지면 ‘ㄴㅇ’ ‘ㄷㅇ’ ‘ㄹㅇ’ ‘ㅇㅇ’가 되어 획수면에서 8획이 되니 곧 八卦를 象하게 된다. 이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⁹⁾



‘기’를 보태거나¹¹⁾, 풀이씨[서술어] 줄기에 붙어 이름씨[명사]를 만드는 ‘이’를 붙여서¹²⁾ ‘아픔’ ‘아프기’ ‘아프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픔’의 ‘음’이란 글자는 발음할 때에 사방에서 안으로 구심성을 갖고 오므러드는 陰性的 느낌을 주게 된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 소리를 낼 때에 구체적으로 그 부위가 드러나지 않거나 병의 성향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 ‘음음’하고 신음하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거나 생각을 더 해보기 위해 ‘음~’하듯이 ‘아픔’은 痛의 성향이 ‘아’字로 발한 후 일부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일부는 안으로

3. 혼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한 痛·病·疼字의 풀이 및 해석

가. 痛字의 풀이 및 해석

痛은 ‘아프다’는 뜻이 되며, ‘아프다’는 서술형이므로 의학계에서 병리용어로 이름씨[명사]를 사용하는 것과 다소 느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름씨[명사]화해야 한다.

움직씨[동사]를 이름씨[명사]화 하려면 ‘ㄴ’ 이외의 받침없는 움직씨[동사]나 그림씨[형용사] 줄기에 붙어 끝없는 이름씨[명사]를 만드는 ‘ㅇ’을 더하거나,¹⁰⁾ 움직씨[동사]뿌리 위나 또는 풀이씨[서술어] 줄기에 붙어 이름씨[명사]를 만드는

수렴되어 지속되는 陰象이어서, 痛이 비교적 빠르고 날카로와 陽性的 느낌을 주는 것과 차이가 있고, ‘아프기’의 ‘기’는 지나친 능동적 느낌을 주어 마치 痛이란 병리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장 유발시키는 느낌을 준다. 한편 ‘아프이’는 말 자체가 다소 늘어서 서술적 느낌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축약시켜 ‘아피’로 하는 것이 좋다. ‘아피’는 ‘아’에서 말한 痛의 성질을 ‘피’의 첫소리 ‘표’으로 일정량 상하좌우로 퍼뜨려 발산시키면서도, 가운데 소리 ‘ㅍ’가 地를 상징하여 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안에 痛의 성향을 유지하면서 ‘ㅣ’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9) 新講訓民正音, 徐炳國, 學文社, 1983, P 106.

10)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2, V2, P 1273.

11) 上揭書, V1, P 581.

12) 上揭書, V2, P 3312.

을 상징하듯 中으로 陰과 陽의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아피’의 첫글자 ‘아’는 첫소리 ‘ㅇ’과 가운데 소리 ‘ㅣ’가 합해진 글자로서 ‘ㅇ’은 목구멍 소리로 오행상 水에 해당하니 水는 만물을 생하는 근본이 되고 또한 ‘ㅣ’는 하늘이 세번째로 木을 생하는 자리로써¹³⁾ 오행상 木에 해당하니, ‘아’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어 나오는 象인 것이다.¹⁴⁾ 그렇게 유발되어 나온 것이 ‘피’의 첫소리 ‘ㅍ’에 의해 일정량 상하좌우로 내보내지고, 중앙 10±인 ‘一’에 의해 내재적인 요소를 머금으면서 아직 완전한 꼴을 이루지는 못하고 지속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완성해 마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지간에 우뚝서서 陰陽動靜을 아울러 주관하여 人을 상징하며, 또한 上中下를 동시에 꿰뚫는 中性 역할을 상징하는 ‘이’에 의해 痛症이 하나의 구체적 事物로 인식되고, 이름지어지게[이름씨화: 명사화]된다.

나. 疼字의 풀이 및 痛과의 차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痛의 서술형은 ‘아프다’이고, 이름씨[명사형]는 ‘아피’이다. 그런데 통증은 통증의 성향에 따라 빠르고 날카로우며 겉으로 드러나는 陽 성질의 통증이 있고, 느리고 무디며 은근하고 안에 숨어 있는 듯한 陰 성향의 통증이 있다. 痛字의 병질변(疒)부수를 떼고 삼수변(彡)부수를 붙이면 샘솟듯 솟구쳐 나온다는 湧(湧)字가 되고, 책받침변(辵)을 붙이면 두루 미친다는 通字가 된다. 한편 痛字의 병질변(疒)부수 안에 겨울 冬字를 집어 넣으면 아플듯(疼)字가 된다. 湧이 밑에서 위로 솟구쳐 나오는

陽의 성질이라면, 冬은 겨울의 단아 같무리하는[閉藏] 陰의 성질이므로, 통증의 모양이 陽의 기세를 떨 때는 痛을 쓰고, 陰의 형국을 이룰 때에는 疼을 써야 할 것이다.¹⁵⁾ 또한 ‘不通則痛하고 通則不痛하다’는 말처럼 痛은 두루 미치지 못해(不通) 생기는 모든 아픈 꼴에 쓸 수 있 으되 疼과 비교 상대해서 쓸 때는 陽 성향의 통증에 쓰면서 ‘아프다’(서술형) ‘아피’(명사형)로 해석하고, 疼은 陰 성질의 통증에 사용하면서 ‘우릿하다’ 또는 ‘우릿하게 아프다’(이상 서술형)·‘우림’ ‘울이’ 또는 ‘우피’(이상 명사형)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 病字의 풀이 및 痛과의 차이

病字에서 병질변(疒)을 떼면 丙字가 되는데 丙은 10干의 세째번으로 오행으로는 火, 방위로는 南方, 계절로는 여름을 나타내며 아울러 밝다, 굳세다, 강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丙에 나무목변(木)을 붙이면 근본·자루라는 의미의 柄字가 된다. 오행상 丙丁은 火에 속하며, 火는 내면에 함장되어 있던 기운이 밖으로 최대한 발휘되는[蕃秀] 陽의 성질이므로 病은 몸의 이상 상태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으면서 또한 그 근본 뿌리가 깊은 것을 상징한다면¹⁶⁾, 痛은 다소 가변적이

14) 鍼灸學에서도 손으로 눌렀을 때 ‘阿(아)’하는 자리가 바로 침 놓을 자리라는 뜻으로 阿是穴이란 穴이 있다.

15) 脾土는 濕을 주관하고 腎水는 寒을 주관하는데 水土는 同胞로서(水流濕) 둘 다 지극한 陰이다. 濕은 重着性(무겁게 들러붙는 성질)이 있고 寒은 沈靜性(가라앉아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우릿하게 아픈 陰性의 통증엔 疼이란 글자를 쓰게 된다.

16) 또한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인 불(丙

13) 訓民正音, 兪昌均, 1988, 螢雪社, P 48.

고 일시적인 몸의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Sign)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痛에 해당하는 '아피'의 두번째 글자 '피'가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통증이 발동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되, 중성이 없어서 하나의 완전한 꼴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病에 해당하는 '얹이'의 경우 초성으로 발동되어 중성으로 이어지고 중성으로 그쳐 있어 하나의 완전한 꼴을 이루고 있고, 또 중성의 '리' 받침은 정지 상태가 아닌 進行 상황을 의미하며, 두번째 글자 '이'가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사물임을 표상해 주고 있다.

III 結論

기존 한의학 서적 내지 한글사전에서는 구별해 번역하지 않고 혼용해 쓰고 있는 痛·病·疼을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기대어 풀이해 본바, 다음과 같이 옮겨 볼 수 있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痛의 서술형은 '아프다'이고 명사형은 '아피'로 합이 좋을듯 사료된다.
2. 病의 서술형은 '얹다'이고 명사형은 '얹이'로 합이 좋을듯 사료된다.
3. 疼의 서술형은 '우리하다' 또는 '우리하게 아프다'이고 명사형은 '우림' '울이' 또는 '우피'로 합이 좋을듯 사료된다.

IV. 參考文獻

- 1) 精校黃帝內經, 洪元植 校, 1985, 東洋醫學研究院.
- 2) 大山周易講解, 金碩鎭, 1993, 大有出版社.
- 3) 懸吐完譯, 中庸集註, 成百曉, 1991, 傳統文化研究院.
- 4)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87.
- 5)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1991.
- 6) 花潭集, 徐敬德, 1980, 大洋書籍.
- 7) 聖經, 성서교재간행사, 1989.
- 8) 동의학 용어 해설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 9) 제증신편, 여강출판사, 1992.
- 10) 동의내과학, 여강출판사, 1992.
- 11) 新講訓民正音, 徐炳國, 1983, 學文社.
- 12) 訓民正音, 兪昌均, 1988, 螢雪社.
- 13) 訓民正音의 構造原理, 1990, 李正浩, 亞細亞出版社.
- 14) 訓民正音의 이해, 신상순 外 2人 編, 1993, 한신문화사.
- 15) 陰陽과 五行의 관계, 朴贊國, 1990,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4.

丁火)에 이상이 생겨 나타난 질병으로 볼 수도 있다.